

내달 19일부터 위안화로 홍콩증시 거래... 유연성·유동성 ↑

● 차이나 뉴스&리포트

홍콩증권거래소 이중통화 거래 도입
실소유권 변경없이 주식 교환 가능
알리바바, 콰이서우 등 20곳 신청



홍콩 익스체인지 스퀘어.

다음달 19일부터 홍콩 증시에서도 위안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가능한 종목이 처음에는 20여개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유동성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위안화 거래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홍콩이 글로벌 위안화 허브로서의 역할에 적극 나서면서 위안화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홍콩 당국은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 무역 결제에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들도 위안화 주식 거래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다음달 19일부터 홍콩달러-위안

화 이중통화 거래를 시작한다.

HKEX는 아시아에서 3번째로 큰 증권거래소다. 기존에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 팔려면 거래 시스템에서 위안화를 홍콩달러로 바꿔야 했다. 홍콩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거래 시스템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없게 된다.

HKEX 니콜라스 아구진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이중통화 거래는

홍콩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선도의 역의 위안화 허브로서 홍콩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거래 시스템에서 투자자들은 홍콩달러나 위안

화로 상장된 주식을 실소유권 변경없이 교환할 수 있다. HKEX는 이 과정에서 위안화 유동성을 제공하고 두 통화 간 가격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를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알리바바를 비롯해 HKEX, 안타스포츠, 콰이서우 기술 등 20곳 이상의 홍콩 상장 기업이 이중통화 거래를 신청했다.

알리바바는 “이중통화 거래는 회사 주주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유연성과 주식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구진은 “신중한 상장사들은 현재 홍콩 증시 유동성의 거의 40%를 차지한다”며 “홍콩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식들이며, 새로운 위안화 거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화 거래는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 조성자와 홍콩 투자자, 해외 투자자들

만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중국 본토 투자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홍콩 로버트리와이왕 금융서비스 부문 의원은 “의회는 이중통화 거래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더 많은 기관이 유동성 제공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많은 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무역 결제에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은 위안화를 사용해 홍콩 주식을 거래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며, 국제 금융 센터로서 홍콩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국제 무역에서 중국 위안화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이미 위안화가 달러를 제친데 이어 중국의 해외 무역에서도 위안화로 결제한 규모가 급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 4.7% 소매판매·건설수주·수출 감소

통계청 1분기 지역경제동향

에너지요금 인상에 모든 시·도 물가 ↑
고용률 61.2%... 세종 등 평균 상회

지난 1분기 고물가 행진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소비(소매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를 포함, 일부 지역 소비가 부진한 탓에 전체 소비는 줄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경북지역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9.2% 늘어 시·도 17곳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이 7.5%, 대구가 7.2% 순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문소매점을 비롯해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등의 소매판매가 특히 증가했다.

서울·세종 등의 소비도 증가한 반면, 전국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1.1% 감소했다. 인천(-4.7%)과 제주(-5.8%)도 면세점 판매 부진 등으로 소비가 줄었고 전남이 -1.4%를 나타냈다.

1분기 소비자물가는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올랐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전기·가스·수도·외식 가격이 모든 시도의 물가상승을 이끈 것이다.

강원(5.2%)이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충북·전북이 각각 5% 상승을 기록

했다. 세종(4.4%)·대전(4.5%)·경남(4.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고용률은 0.7%포인트(p) 오른 61.2%로 나타났다. 세종이 1.8%p 오른 것을 비롯해 울산(1.6%p)과 광주(1.5%p) 등이 평균을 상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대·50대·60대 이상의 고용률이 올라 전국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건설 수주는 사무실과 점포 등 수주가 감소한 탓으로 12.5% 감소했다.

세종(-82.7%)과 대구(-81.9%), 대전(-74.4%) 등 지역에서 주택과 기계설치 등의 수주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반면, 울산(665.0%)과 광주(129.2%), 부산(93.1%) 등은 관련 건설 수주가 호조를 보였다.

수출은 전국적으로 12.6% 감소했다. 충남(-35.3%)을 비롯해 세종(-34.4%), 제주(-22.2%) 등의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수출은 대구(27.6%)와 광주(6.0%), 울산(1.0%)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전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공업생산 또한 전년 동기 대비 9.7% 줄었다. 광공업생산지수 하락폭은 글로벌금융위기 상황이던 지난 2009년 1분기 15.1% 하락 이후 14년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강원(8.6%)과 대구(4.7%), 인천(4.1%) 등에서 전기·가스업, 기타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지만 경기(-23.4%), 서울(-15.3%), 충북(-11.4%)에서 반도체·전자부품 및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 전국적 위축세를 보였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에서 수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에 치솟으며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는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올랐다.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촌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WeConnectScience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듭니다

한 번 사용된 플라스틱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듯

버려진 플라스틱들이
지금 LG화학의 기술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듭니다**

폐플라스틱도 새 것처럼 다시 쓰는
LG화학의 PCR 플라스틱

플라스틱 재활용 아트
Veronika Richterová: GREY MULLET, photo Michal Čihlár